

# 정례브리핑

2021.3.12(금) 10:30, 차덕철 부대변인(통일부)

안녕하세요? 3월 12일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일부 장차관님 주요 일정입니다.

오늘 통일부 장차관은 특별한 외부 행사 없이 부내에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이 시간 진행되고 있는 통일부가 주최하는 영상 세미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과거 북핵 협상의 교훈'이라는 것을 주제로 영상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토론회에는 한국과 미국의 북핵 협상 전문가 그리고 과거의 경험자분들이 참석해서 과거 사례를 평가하고, 향후의 해법과 대처 방향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사회를 보시고, 알렉스 워전 미 국무부 부차관보,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북핵협상대표, 천해성 전 통일부 차관, 김상기 통일연구원 박사님이 참석하실 계획입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국내외 전문가들을 모시고 한반도 문제의 이해를 제고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공감대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 토론회는 한반도 국제평화포럼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현재 국문과 영문으로 모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서 모두 말씀을 다 드리고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어제 이인영 장관님께서 한미연합지휘소 훈련 현장에 가셨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이 맞는지 일단 확인 부탁드립니다, 가셨다면 어떤 취지로 가셨고, 서욱 국방부 장관의 제안에 따라 가신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어제 저희도 질문해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많은 문의를 받았는데요. 저희가 군 일정과 관련된 내용은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질문> 이게 장관께서 가신 일정인데도 밝히기가 좀 어려우신 건가요?

<답변> 이번 상황과 관련해서 군 일정이기 때문에 저희 부처뿐만 아니라 국방부에서도 관련 사항을 확인해 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퀴타나 보고관께서 자유아시아방송 측과 인터뷰를 하

면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는데 어제 통일부 입장 나온 것 이외에 또다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입장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어제 대변인 백브리핑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요. 대변인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강조를 하자면, 남북관계발전법 법률 개정안은 동 법안은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이게 좀 지난 일이라서 질문드리기가 그래서 마지막까지 기다렸는데요. 장관께서 대북 제재가 비핵화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효과성, 효과가 없었을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대북 제재가 비핵화에 기여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통일부 내부적으로 좀 어떤 부분에서 기여를 했고, 안했고 하는지 그런 검토를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통일부 장관이 지난 파이낸셜타임즈 인터뷰에서 제재가 한반도 비핵화에 어떠한 효과가 있었느냐? 그리고 제재의 목적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러한 점들은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점들은 분명히 평가하고 넘어가야 될 시점이 됐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특히, 인도주의적 사안에 대해서는 제재의 유연성,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국제사회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해서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소통과 협의를, 협의의 노력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도 국내외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현재 듣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추가해서 혹시 그런 의견들이 좀 취합이 돼서 어떤 보고서 같은 것도 만드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답변>** 현재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장관님께서 한미연합지휘훈련소를 방문하셨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어떤 통일부의 공식 확인과 가셨는데 왜 공개를 안 하셨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조금 전에 김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인데요. 저희가 본 일정과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질문>** 그러면 그게 사실이 아닌지도 아예 확인을 못 해주신다는 건가요? 어제 방문하신 내용 자체도 공개를 못 하시는 건지, 그런데 이미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답변>** 제가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립니다.

<질문> 정보기관장도 아니시고 통일부 장관으로서 공개 일정이나 그 일정들이 대부분 다 공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요, 장관께서. 그러니까 이것을 공개 못 하시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이러한 것은 군 일정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통일부뿐만 아니라 군 당국, 국방부에서도 관련, 동일한 저희와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같은 질문인데, 사실 그게 좀 저희 납득이 안 돼요, 그 답변이. 왜냐하면 다른 군부대 방문하시거나 이랬을 때는 과거에 공개된 적들이 있는데, 굳이 이번 건은 군 관련 일정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설명이 좀 납득이 안 돼서 계속 같은 질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답변> 당시에 군부대를 방문하신 것과 이번 훈련기간 중에, 지금 기사가 나간 대로 군 일정과 관련된 것은 조금 성격이 다른 것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